



오키나와에 마무리 캠프를 차린 KIA가 좌완 육성을 목표로 마운드를 가다듬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유창식(왼쪽부터), 정용운, 최현정, 김명찬, 임기준, 이준영 그리고 프리미어 12 상비군 훈련 중인 심동섭까지 7명의 좌완이 참여한다.

# 호랑이 마운드 좌완이 필요해

## KIA, 임기준·유창식 등 7명 경쟁 유도...日 특급투수 이마나카 신지 인스트럭터 참여

‘호랑이 군단’의 두 번째 고민 해결. 이번에는 좌완 육성이다. KIA는 올 시즌 백용환·이흥구가 ‘안방마님’ 싸움을 하면서 오랜 고민이었던 포수 고민에서 탈출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에는 ‘김기태호’이 있었다. 이흥구가 포수 경쟁의 막을 열었고, 백용환이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포수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었다.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김기태호’. 이번에 풀어야 할 고민은 좌완이다. KIA에서는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자체가 경쟁력일 정도로 좌완은 특수 포지션이 됐다. 올 시즌에도 양현종과 심동섭을 빼고는 이렇다할 좌완들의 활약이 없었다. 스프링 캠프

에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임기준과 트레이드를 통해 타이거즈맨이 된 7억팔 유창식은 기대만 남기고 시즌을 끝냈다. 김기태 감독은 이번 캠프의 목표를 ‘1군 선수 육성’으로 잡았다. 기존 선수들을 위협할 ‘경쟁자’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1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수를 만들어내 내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KIA는 이번 캠프에 13명의 투수를 파견했다. 이중 좌완이 7명이다. 프리미어 12 대표팀 상비군으로 훈련 중인 심동섭이 일정이 끝나는 대로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 가운데 임기준, 유창식, 김명찬, 최현정, 이준영, 정용운이 마무리 캠프에서 맘을 즐기고 있다. 대졸 루키 이준영은 캠프와 시범경기에서 테스트를 받았던

자원이고, 역시 대졸 루키인 김명찬은 시즌 막바지 마운드에 등장했다가 미국 애리조나 교육리그에 다녀온 유망주다. 두산에서 출발해 고양을 거쳐 KIA로 온 ‘92라인’ 최현정은 시즌 중반 손가락 골절로 공백이 있었고, 2009년 우승 멤버인 정용운은 군복무 이후 부상이 겹치면서 이름이 지워졌던 선수다. 최현정과 정용운 모두 애리조나 교육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 캠프에서 내년 시즌을 그리고 있다. 임기준이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자원이자, 스프링 캠프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며 삼성전 감독 호투를 선보이기도 했고, 시즌이 끝나고 진행된 훈련에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김 감독의 갑탄사를 이끌어낼

정도로 페이스가 좋다. 첫걸음부터 다시 밟게 된 유창식은 회복훈련을 통해 몸을 추스렸다. 7명의 좌완을 오키나와에 파견한 KIA는 특급 도우미까지 준비했다. 오는 7일 오키나와 캠프에 특별한 손님이 찾는다. 일본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와무라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이마나카 신지가 인스트럭터로 KIA 캠프에 합류한다. 올 시즌부터 KIA의 포수 조련을 담당하고 있는 나가무라 코지와 주니치에서 특급 배터리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KIA는 일본 마운드를 점령했던 특급 인스트럭터를 통해 투수, 특히 좌완 조련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 “특급 용병투수가 필요해”

### KIA, 빅리거 노에서 영입 추진

‘총알’을 장전한 KIA 타이거즈가 달려오 마운드를 강화한다. 본격적인 스토브리그가 시작되자마자 KIA 타이거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시즌 화이트 삭스의 선발진으로 뛰면서 8승을 수확했던 헛터 노에서(28)가 KIA의 스토브리그에 불을 붙였다. 트위터를 통해서 공격적인 외국인 선수 영입 움직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KIA 구단 측에서도 “영입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노에게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상태다. 노에서는 올 시즌 선발 5경기 포함 메이저리그 10경기에 등판해 6.89의 평균자책점으로 4패만을 기록했지만 150km가 넘는 강속구와 함께 체인지업, 킷 패스트볼, 슬라이더 등의 변화구를 구사하는 검증된 자원이자, 올 시즌 프로야구판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화의 ‘특급 외국인 투수’로 저스 이상의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노에서의 사인 여부가 KIA 팬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5강 싸움 과정에서 남은 아쉬움이 KIA의 화려한 움직임의 배경이 됐다. 구단 내부에서 짚는 5강 실패 요인의 가장 큰 부분에는 ‘외국인 투수’가 있다. 퍼펙트 사나이로 눈길을 끌었던 필립 험버가 잇단 부상 악재 속 3승3패(평균자책점 6.75)로 씁쓸하게 짐을 썼고, 대체 선수로 합류했던 에



반 빅도 화려하게 출발은 했지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면서 초라하게 한국 도전을 끝냈다. 스티븐슨도 ‘땅의 정령’이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으며 10승 고지를 넘었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시즌 막판에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은 어깨 탓에 그라운드에는 물론 덕아웃에서도 자신감을 잃으며 곁돌았다. 양현종과 임준혁의 분전에도 외국인 투수들의 지원 사격이 따르지 않으면서 KIA는 기적 같은 5강 싸움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하지 못했다. 반면 한화는 마운드 출부상 속에서도 역대 최고 몸값을 자랑한 로저스를 앞세워 마지막 5강 싸움에 불을 붙이며 눈길을 끌었다. 시즌이 끝난 뒤 KIA 구단에는 “금액을 떠나서 무조건 좋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라”는 특명이 내려졌다. 기업 차원에서 나서서 ‘총알’을 장전하면서 KIA의 스토브리그가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캔자스시티 30년만에 WS 우승

### 뉴욕 메츠와 연장 12회 접전끝 7-2 승...4승 1패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뉴욕 메츠를 꺾고 30년 만에 월드시리즈(WS·7전4승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1985년 이후 30년 만에 이 팀 창단 후 두 번째 우승이다. 캔자스시티는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월드컵 5차전 원정경기에서 뉴욕 메츠와 연장 12회 접전 끝에 7-2로 승리,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했다. 짜릿한 역전승이었다. 0-2로 뒤지던 9회초 동점을 만들고, 균형이 이어지던 12회초 5점을 쏟아내며 ‘기적의 팀’답게 극적인 승리를 연출했다. 캔자스시티는 8회까지 메츠 선발 맷 하비에게 공풍 묶여 점수를 내지 못했다. 하비는 8회까지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봉쇄했다. 그러나 완봉을 꿈꾸며 등판한 9회초 캔자스시티에 역습을 당해 무너졌다. 캔자스시티는 9회초 선두타자 로렌조 케인이 볼넷으로 출루하고, 에릭 호스머가 적시 2루타를 때려 1점을 만회했다. 메츠 벤치는 뒤늦게 하비를 내리고 마무리 제우리스 파밀리아를 구원 투입했다. 하지만 캔자스시티의 기세를 막지는 못했다. 마이크 무스타커스는 1루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호스머는 3루에 안착했다. 다음 타자 살바도르 페레스도 3루수 땅볼로 잡

혔으나 주자 호스머에게는 기회였다. 호스머는 홈으로 내달렸고, 메츠 1루수 루카스 두다의 홈 송구가 뒤로 빠진 틈을 타 득점에 성공, 2-2 동점을 만들었다.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간 캔자스시티는 12회초에 타선이 다시 불뛴다. 선두타자 페레스의 우전 안타와 대주자 재러드 다이슨의 도루로 1사 2루 역전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크리스티안 콜론이 좌전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점수는 3-2로 뒤집혔다. 파울로 울랜도가 메츠 2루수 대니얼 머피의 실책으로 출루한 가운데 알시데스 에스코바르가 3루선상을 흐르는 2루타를 날려 콜론도 득점에 성공했다. 벤 조브리스트의 고의사구로 만든 1사 만루에서 케인이 싹쓸이 2루타를 터트렸다. 점수 차는 7-2로 벌어졌다. 마무리투수 웨이드 데이비스는 12회말 실점을 막으며 승리를 지켜냈다. 캔자스시티는 1985년 이후 30년 만에 창단 후 두 번째로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으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우승을 놓친 바 있다. 메츠는 1969년, 1986년 이후 세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렸으나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뉴욕 메츠 간 미국프로야구 월드컵 5차전 경기 종료 후 로열스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병호 ML행 ‘시동’...넥센, KBO에 포스팅 요청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거포 박병호(29·넥센 히어로즈)가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향한 첫발을 뗐다. 박병호의 해외 진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넥센은 2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급 경쟁 입찰)을 공식 요청했다. KBO로부터 박병호의 포스팅 신청을 전달받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30개 구단에 이를 공시한다. 공시한 날로부터 4일 동안 박병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단들이 입찰액을 적어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7일 새벽에 가장 높은 금액을 KBO에 통보하고, KBO는 즉각 넥센에 이를 전달한다. 넥센은 9일 포스팅 수용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선수구단	포스팅액	비고	연속
이성훈(삼성)	60만 달러	수용 거부	98년 3월
신용호(두산)	2만5천 달러	수용 거부	02년 2월
정형중(삼성)	65만 달러	수용 거부	02년 12월
김광현(한화)	101만 달러	샌디에고 파이터스	09년 1월
정현진(한화)	2,573만7,737 달러(33.9%)	LA다저스	12년 11월
김광현(두산)	200만 달러	샌디에고 파이터스	14년 11월
정현진(두산)	150만 달러(수용)	수용 거부	14년 11월
정현진(두산)	500만2,015 달러	피츠버그 파이리츠	14년 11월